

광양 보건진료소, 주민 건강격차 해소 역할 '톡톡'

관내 14개소...찾아가는 진료 방식 전환 질환별 맞춤형 건강 정보·특화사업 운영

광양시 보건진료소가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며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의 의료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진료소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현재 광양시에는 총 1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이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 료행위와 건강증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내 14개 보건진료소는 오전에는 내소 진료 중심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인력(이하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8개 마을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매일 오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 측정과 건강 상담은 물론,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 계절별 감염병 예방, 폭염·한파 대비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인 식생활 등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광양시 보건진료소는 단순한 환자 진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건강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환별 맞춤형 건강 상식을 제공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을 돕고 있다.

운동기구, 체지방측정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건강 쉼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보건진료소를 통해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광양시 보건진료소가 93개 마을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노인피부건조증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 <광양시 제공>

에는 무더위 쉼터로, 겨울철에는 따뜻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사계절 내내 지역사회에 밀

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시 각 보건진료소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 요구를 반영해 자체 건강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가거호호 맞춤형 건강 돌봄 ▲노인 피부건조증 관리 ▲지압교실 ▲스트레스 관리 ▲미술놀이터 ▲뇌튼튼 프로그램 ▲실버요가 등이 있으며, 주민 생활 밀착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단순히 정해진 프로그램을 반복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만족도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인력 및 보건진료소장의 역량 강화를 병행하며, 최신 건강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박양숙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진료소는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세심하게 돌보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열 기자

여수시,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

지속가능성·세대 다양성 목표

5대 전략·40개 세부 사업 제안

여수시가 '지속가능성', '세대 다양성'을 핵심 키워드로 중장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용역은 여수시 인구 현황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가 맡아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보고회는 인구정책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신규 제안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용역사는 다양한 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여수라는 비전 아래 인구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의 공존, 정주성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 ▲여성이 행복한 여수 ▲다양한 가족 지원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 조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 5대 전략과 40개 세부 사업을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제안했다.

여수시는 용역 결과를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향후 인구정책 추진 전략의 뼈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정책 실행에 있어 성과 지표 기반의

피드백 체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점검·수정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구정책은 주거, 일자리, 돌봄, 교육, 문화, 복지 등 전 생애주기와 도시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제안된 정책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인구정책으로 다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폐수·폐기물처리 사업장 등

구례군은 4일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맞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 폐수·대기 배출업소,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구례군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

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6·8월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중점

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해양쓰레기 수거 '청정고흥호' 운영

那 다목적 정화선...도서·연안 맞춤형 대응

고흥군이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로 어업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 피해와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도서 및 연안 해역에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수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조류와 풍랑에 따라 어장·항로

·해안가 등 광범위 해역에 유입된다.

특히 김 양식장 등 어업시설 철거 이후 발생하는 시설 잔재물은 해상 부유 쓰레기로 전환돼 항해 장애나 어선 충돌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서 지역은 수거 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워 정비가 지연되기 쉬운 만큼 더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다목적 정화선 '청정고흥

호'를 중심으로, 유실 어구, 부유 쓰레기, 도서적지 쓰레기 등을 지형과 시기에 따라 구분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정고흥호'는 수심이 얇고 접근이 어려운 해역까지 진입할 수 있어 도서·연안의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어선 항로, 양식장 주변, 도서 해안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연중 수거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휴일에도 작업을 이어가며 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수거는 단순한 환경정비가 아니라, 어민의 생업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고흥바다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월 도양읍 시산도-나로도 해역에서 김 양식 종료 후 발생한 부유 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항로 안전 확보에 기여했으며, 5월에는 시산도 해안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 약 100여 종을 동원해 처리하며 도서민의 숙원을 해결했다. /박현진 기자



고흥군이 중장비를 이용해 도서·연안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화순고인돌유적지로 앵두 따러 오세요"

3천300주 규모...무료 체험

화순군은 4일 "화순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람객 대상으로 앵두(사진) 따기 체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고인돌 유적지 내 약 3천300주 규모의 앵두나무에서 직접 앵두를 수확하며,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 행사는 입장료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5일에는 화순군 어린이집 원아들이 단체로 참여할 예정이다.

앵두 따기 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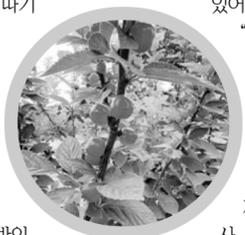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자연을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반갑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기운 화순군 고인돌사업소 소장은 "화순고인돌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을 비롯해 자연과 역사 자원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노인...최대 3천만원 보장

장성군은 4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고령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기간은 2025년 5월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운행 중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준다. 본인부담금은 보장금액의 10%인 최대 3만원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

구해야 하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동보조기기를 운전한 당사자(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장성군은 2023년 6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장애인과 고령 주민의 이동권 향상과 사고 발생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서 국내 최대 '캔들라이트 콘서트'

내일 오후 7시40분...입장객 누구나 관람

순천시는 4일 "오는 6일 오후 7시40분 국내 최대 규모의 야의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별가든 밤 유와 위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약 1만5천여명의 캔들라이트가 정원을 수놓으며 환상적인 야경을 만든다.

고품격 클래식 선율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클래식 5중주 '앙상블 톤즈(Ensemble Tones)'가 올라, 클래식명곡과 영화음악, 지브리 OST 등으로 구성된 총 65분간의 고품격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야간 특별공연에 맞춰 정원 운영 시간도 연장된다.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2시간 연장되며, 입장권 발권은 평소와 동일하게 오후 7시까지 진



행된다. 공연 관람은 입장객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좌석 없이 돛자리를 지참해 잔디 위에 자유롭게 앉아 공연을 감상하는 피크닉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고품격 야간 문화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치유와 위로, 감동과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